

# '토요일 밤엔 박물관서 데이트 즐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내일부터 토요일 야간개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토요일 야간개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토요일에 운영시간을 늘려 관광객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분관인 근대미술관(구 18은행),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도 토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게 된다. 박물관은 토요일 야간개관과 함께 인근 벨트화지역을 특화된 야간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열리는 '박물관 개항장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야간운영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저녁시간까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야간운영을 통하여 원도심 거리에 불을 밝혀 군산시민에게도 저녁시간 좋은 문화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 '나운규, 아리랑' 창극 공연

영화인 나운규의 삶과 영화 '아리랑' 그리고 한민족의 상징적인 노래 '아리랑'을 엮은 우리 시대 예술가의 이야기가 창극으로 부활한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신규 브랜드창극 <나운규, 아리랑>을 오는 9월2~4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 올린다. 이번 창극은 국립민속국악원이 2015년 4월 '제1회 창극 소재 공모전'을 시작으로 2년여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작품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한민족의 노래이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아리랑을 작품 전반에 사용하고, 식민지 시대 고통 받던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던 기념비적인 영화 아리랑과 그 영화의 주역인 나운규의 삶을 담아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개봉한 나운규 감독의 무성영화 '아리랑'은 당시에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영화에 사용한 노래 아리랑은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되어 지금까지 이른다. 극작가 최현무는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실존 인물 나운규의 생애와 그의 대표작 영화 아리랑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창극당한 한 예술가의 고뇌와 슬픔, 희망과 좌절, 그를 통한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근본적인 질문서이기도 하다. 동시에 가족애와 개인적인 사랑,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작품은 모두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이 배치되어 있다. 연출가 장갑균은 극의 무대를 사계절 설정하고 작곡자 양승환은 그와 어울리는 아리랑으로 시상을 극대화한다. 본조아리랑을 중심으로 구아리랑, 할버트 아리랑(1896년 미국인 호머 할버트 박사가 오션보로 채보한 아리랑),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삼주아리랑 6곡이 극 배경에 흐른다. 또한 작품에서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는 안숙선 명창이 작창을 맡아 변화무쌍한 우리말의 특징을 백분 살려 표현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063-620-2328로 하면 된다. 이번 공연에 이어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순회공연 한다. /정해은 기자



## 창작소리극 '장화, 홍련' 공연

2016 전라북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작인 <장화, 홍련>이 21일 오후 8시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무대에 오른다. 국악인 이희정이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을 새로이 각색했다. 이 작품은 조선 효종 때 평안도 철산부사로 부임한 정몽룡이, 배좌수의 딸 장화와 홍련이 계모의 흉계로 원통하게 죽은 사건을 처리한 사실담을 소재로 한다. 공

### 21일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연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무너져 가는 가정을 작품 속 캐릭터들이 가진 각각의 아픔으로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성찰하고 진실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을 풀어낸다. 작품에는 배우다림퍼니 연출자 박민성과 배우 하형래, 이희정 밴드의 베이스기타 이영화와 재즈피아니스트 최고은, 드럼 김

인수를 비롯해 전주소리문화관 상설공연단의 소리꽃 단원 대금 연주자 권민환, 가야금 연주자 박승희, 타악 양한나가 반주를 맡아 출연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예매는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 오후6시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문의 063-231-0771 /정해은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문화소외계층 여성 대상 '손숙의 그 여자' 무료 관람 오늘 소리문화전당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손숙의 그 여자> 관람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융성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일환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전성진)이 협업하여 문화취약계층여성 30여명에게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 <손숙의 그 여자>는 시몬느 드 보바르의 소설 '위기의 여자'를 한국 여성의 현실에 맞게 무대화하여 새롭게 쓴 작품으로,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한 여인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다. 공연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략기획팀 063-254-3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19일>

<p><b>▷쥐띠</b> 4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고 사람과의 화합에도 좋은 운.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역량이 따르고 시비가 있다. 72년생: 체계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 84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p>	<p><b>▷소띠</b> 49년생: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니 긍정적인 운. 61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큰 걱정은 하지 마라. 73년생: 동기간과의 협동으로 해결된다. 85년생: 모진 말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앞으로 나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62년생: 가을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급격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이니 주의하라.</p>	<p><b>▷토끼띠</b>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함몰해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이니 주의 깊게 들어보라.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p>
<p><b>▷용띠</b>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p>	<p><b>▷뱀띠</b> 5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다.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p>	<p><b>▷말띠</b>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된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90년생: 약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p>	<p><b>▷양띠</b>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이니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험통하고 좋지나 망설이지 마라.</p>
<p><b>▷원숭이띠</b>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민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를 야기하니 조심하라.</p>	<p><b>▷닭띠</b> 57년생: 볼에 수확을 하려는 격. 69년생: 지금 답답하고 힘드나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해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p>	<p><b>▷개띠</b>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58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다.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래 다가오는 운이다.</p>	<p><b>▷돼지띠</b>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는 일이 틀어질 수 있음이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p>